

## “내원암 땅 내놔” “안될 말”

### 친일파 이해창 후손 21인, 남양주 내원암 상대 토지소유권 확인 소송

#### “해당토지는 국유지, 소유입증 할 수 없어”

친일파 후손의 조상 땅 찾기 소송이 사람을 대상으로 번짐에 따라 종단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대표적인 친일파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히는 이해창(李海昌)의 후손 21인은 2004년 12월 24일 서울중앙지법 제12민사부에 대한불교 조계종 내원암(주지 재문)을 상대로 토지소유권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문제가 된 토지는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산103-1번지로, 내원암 경내지 전체를 포함한다. 토지 면적은 4만8천 평이며 시가 24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해창 후손들은 “내원암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절차 이행”을 요구하고 있어, 이들이 승소할 경우 내원암은 법당과 요사채를 제외한 경내지 전부를 잃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해창은 1910년 당시 공로자로 일제로부터 후작작위와 은사금 16만8,000원을 받았으며, 김희선 의원이 발표한 친일파 명단에도 포함된 인물. 친일파 후손의 재산반환소송이 1990년대 이후 30여건 이상 진행돼왔지만 국가가 아닌 개인을 상대로 한 것은 드문 일인데다, 사찰을 상대로 소송 제기한 것도 처음이다. 소장(訴狀)에서 이해창의 후손들은 “해당 토지는 원고들의 조부 및

증조부인 이해창이 1917년 10월 사정(査定)조사하여 결정하는 것받아 소유해왔으며, 이를 상속받은 이덕주가 사망한 1962년 후손들이 공동 상속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이 근거로 제시한 자료는 일제 당시 제작된 <양주군별내면인야조사부(이하 인야조사부)>. <인야조사부>에는 토지의 국·사유 여부와 소유자 및 연고자가 기재돼 있다. 인야조사부에 따르면 청학리 산103번지의 소유자 및 연고자란에 이해창이라는 이름이 기재돼 있다. 이해창 후손들은 “내원암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절차 이행”을 요구하고 있어, 이들이 승소할 경우 내원암은 법당과 요사채를 제외한 경내지 전부를 잃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해창은 1910년 당시 공로자로 일제로부터 후작작위와 은사금 16만8,000원을 받았으며, 김희선 의원이 발표한 친일파 명단에도 포함된 인물. 친일파 후손의 재산반환소송이 1990년대 이후 30여건 이상 진행돼왔지만 국가가 아닌 개인을 상대로 한 것은 드문 일인데다, 사찰을 상대로 소송 제기한 것도 처음이다. 소장(訴狀)에서 이해창의 후손들은 “해당 토지는 원고들의 조부 및

“인야조사부”에 해당토지가 국유로 표기돼 있는 점을 미뤄볼 때 이해창이라는 이름은 소유자가 아닌 연고자에 불과해, 일제당시 해당토지의 소유를 입증할 수 없다”며 “이도 새로운 증거제출의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친일파에 대한 국민적 정서나 법감정은 무관하게 증거에 바탕한 사실관계만 따져 심리하는 법정에서 증거가 가장 강력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친일파 후손들은 확정판결이 끝난 16건의 땅 찾기 소송 가운데 8건(부본승소 포함) 가량 승소했다.

내원암 본사인 남양주 봉선사의 한 관계자는 “항일투쟁 선봉에 섰던 윤희 스님의 열이 서려 있는 지역에서 친일파 후손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이를 방지할 경우 더 많은 사찰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불교계 전체가 힘을 합쳐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락산 내원암은 신라시대 창건된 절로, 경내에는 신라시대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마륜석불상 등이 있다.

박익순 기자 ufo@buddhapia.com



어린이 위해 선체조 배우오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회장 지현) 제39차 연수회가 ‘명상과 함께하는 여름불교학교’를 주제로 6월 4~6일 속리산 유스호스텔에서 열렸다. 이번 연수회에서는 여름불교학교 프로그램 및 컨설팅, 마술의 세계, 초기불교 수행, 호호와 갠기 명상, 선체조 등의 다양한 강좌가 마련돼 인기를 끌었다. 사진은 연수회에 참가한 어린이들이 지도자들이 정어 스님(여어선원 원장)의 지도로 어린이들도 쉽게 할 수 있는 선체조를 배우는 모습. 관련기사 31면 사진=천미희 기자

#### 법장 스님 14일 평양行

6·15축전 명예대표로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이 6·15 남북공동선언 5주년을 기념해 6월 14~17일 평양에서 열리는 민족통일대추전에 남측 명예대표로 참가한다. 지난 6월 8일 6·15 남북공동행사 남측준비위 백낙정 상임대표에게 요청을 받고 명예대표직을 수락한 법장 스님은 조계종 중앙총회위원장 법동,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장 명진, 불국사 주지 종상, 조계종 사회부장 정년, 진각복지재단 장지현 사무처장 등과 평양을 방문할 예정이다. 한편 남측 참가단은 북측의 요청으로 300명만 행사가 참가한다.

유철주 기자 ycj@buddhapia.com

#### 성보박물관 설립·운영 ‘강화’

조계종, 관련 ‘령’ 입법예고... 필수시설 등 명문화

지난 3월 23일 개정된 조계종 성보보존법과 관련 ‘성보박물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령’ 제정안과 ‘사찰부동산관리령’의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성보보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제정안은 성보박물관이 향은·향승 공조시설, 적정 규모의 수장고 등의 필수시설을 갖추도록 명시(제4조)하는 한편, 성보박물관 설립 계획 타당성을 총무원 문화부가 심사(제5조)하도록 했다. 박물관의 1년간 운영계획도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향승 운영 등에 대한 충분한 기획 없이 이뤄지는 박물관 난립 방지라는 측면에서 의미를 갖는다. 제정안은 또 성보박물관관장회의와 성보박물관협의체를 구성(제22·23조)할 수 있다고 명문화해 성보박물관 상호협력 및 활성화의 가

능성을 열어줬다. 제정안에는 불교중앙박물관에 관련된 조항도 포함됐다. 이에 따르면 불교중앙박물관 관장은 총무원장이 중앙총무기관 부장급으로 임명하며 임기도 보장(제16조)된다. 그밖에 △성보박물관 총사자의 임기와 신분 보장 △향은·향승 공조시설, 적정 규모의 수장고 등 필요 운영경비는 해당사찰의 지원금과 자체사입비로 충당할 것 등의 조항이 삽입됐다. 한편 성보박물관 건립에 대한 문화부의 심사절차가 포함됨에 따라 개정이 필요해진 ‘사찰부동산관리령’ 개정안도 함께 입법예고됐다. 이 개정안에는 재무부가 문화부에 성보박물관 설립 승인신청 건에 대해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도록 하는 조항과 박물관 설립시 필요한 구비

**수요일은 1080 누르고 福 짓는날!**  
 전국 어디서나 일반전화·휴대폰으로 1080 누르면 ‘원음손’이 됩니다  
 나눔의 손잡기 기금모금  
**ARS: 060-700-1080**

**‘할’**  
 먼저 기쁘게 하고 먼저 손가락 마주대하고 꼭 잡고 생각은 배꼽 밑에 두고 하트를 잡아가면 몸과 마음이 편해 집니다  
 생업에 바빠서 잊었던...  
 기쁘게 하고 먼저 손가락 마주대하고 꼭 잡고 생각은 배꼽 밑에 두고 하트를 잡아가면 몸과 마음이 편해 집니다  
 그림·조태호  
 도우 스님 법문에서(법문은 24, 25면에서 만나세요)

**■ 복지부, 미인가 복지시설 ‘선별적 양성화’ 방침**  
 ‘미인가복지시설’ 정책과 관련, 보건복지부가 6월 3일 ‘선별적 양성화’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7월 31일까지 법정 신고시설로 전환하지 못하는 미신고 시설에 대해 지속적으로 양성화를 추진하되 인권 침해 등의 문제가 있는 일부시설은 폐쇄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시설 일제 점검 뒤 인권침해시설은 폐쇄키로

했다. 보건복지부의 이날 발표는 7월 까지 정식인가를 받지 못한 복지시설의 폐쇄한다는 당초의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난 것이어서 미신 습기 때문에 발생하는 미인가시설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양성화’에만 매달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미인가시설을 관리하는 관청이 시설별 양성화를 위한 합당한 기준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경계했다. 한편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의 4월 조사에 따르면 불교계 미인가 시설은 현재 36개소인데 이 중 4곳을 뺀 32곳이 신고시설 전환을

**강원 학인 논문 공모**  
 조계종 교육원은 승가학인들의 수행기공 진작을 위한 ‘제1회 전국 강원 학인 논문공모전’을 시행한다. 수행 교육 포교를 비롯한 강원 사집(2학년반) 이상의 학인으로 탐제 응모도 가능하다. 논문 제출은 10월 1일~31일 한 달간. 대상(200만원) 1편, 금상(150만원) 은상(100만원) 각 2편, 동상(50만원) 3편을 시상한다. 02)732-4923 ssim@buddism.or.kr

**등불로 전하는 자비 광명 찬덕 연등은 최고 품질과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연꽃잎 제조특허(특허 제122168호) / 팔각등 실용신안(등록 제098634호)의 의장등록 다수 보유업체◆

**“연등용 전선 케이블” 찬덕 연등이 시공하면 기초부터 다릅니다.**  
 설계에서.. 시공까지..

지금 전국에선 “연등전선케이블”의 역사가 바뀌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규격에 맞추어 직접 제작·시공하여 드립니다.

**공단등(비단등) 황금등 공단등(비단등) 실크등**  
**중등 팔모조립등 만월등**

\* 만월등, 중등에 사찰이름을 인쇄 할 경우 제작시간이 소모되오니 미리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찬덕 연등제작사** 전화: 031) 792-6288, 794-4055 / 전승: 031) 794-6288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180-1 찬덕홈페이지: www.chanduk.com 한글홈페이지: 찬덕연등 e-mail: chanduk21@hanmail.net

참고: 찬덕연등에 사용된 케이블은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모방시에는 법적제재처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